

수능 예비소집... 수험생 유의사항은?

신분증과 수험표·시험장 반입 가능 물품만 소지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 제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되는 오는 14일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는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9만4924명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응시자들은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로 접수한 본인의 선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특히 시험 당일인 15일 입실시각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예비소집일에 자신의 시험장 번호와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이나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책상 위에 놓아 두어야 하며, 행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인화한 사진 1매를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임시수험표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응시자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시험실에 우선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장 앞 철판에는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종류와 관리 절차를 적은 부착물이 있다. 이를 숙지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렌,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

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다.

전자기능이 없더라도 흑색연필과 개인사프, 투명종이,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연습장,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휴대가 불가하다. 수정테이프는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에는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에 접촉할 수 없도록 매번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자습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만 꺼내 활용해야 하며, 물품을 감독관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정은성 기자



중국 광저우 박람회서 수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북대 학생들.

전북대생들, 지역기업 수출길 열다

기업과 적극적 수출 오더... 올 연말 본격 선적 기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전북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단장 김민호 교수·이하 GTEP사업단)이 최근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수출길을 여는 데 크게 공헌했다. 사업단 임하영·최은경 학생은 최근 중국 광저우 수출입교역회(캔톤페어)에 참가해 전주 소재 (주)다인스의 손톱미용기구 11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또한 이 박람회에서 김정현·조진영 학생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미네랄바이오텍이 생산하는 칼슘음료 8만 달러, 김하나·석수진 학생은 진안군 소재 피지엠(주)의 홍삼제품 및 천연비누 26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

사업단 학생들의 이 전시회에서 상담한 외국 바이어 수는 148명에 달하며 그 중 34명은 향후 계약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력 바이어들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업단은 최근 '싱가포르 한류박람회'에서도

김하영·최지원·한진우·최현경 등 4명의 요원들은 전주 소재 착한음식(주)이 생산하는 아보카도 등 편의식품을 수출해 18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GTEP사업단 학생들은 2학기 들어 동남아 지역 내 다른 전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뷰티 전시회에서 남원시 소재 (주)하이솔의 화장품 수출상담을 마쳤으며, 홍콩국제보석전시회(익산시 소재 엔트라주얼리 보석류 상담), 2018 비온드 뷰티 아세안 방콕 전시회(전주시 소재 엔투인의 미용기구, 주식회사 다인스의 손톱미용기구 상담)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가하여 신규 바이어 151명과 205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해외 전시 상담 결과를 토대로 사업단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수출 오더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올 연말까지 선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전인엽 교수팀, 물로 수소 만드는 고효율 '그래핀 촉매' 개발

저가 귀금속 촉매... 안정성 향상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의 시장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기존 촉매인 백금(Pt)보다 훨씬 싸고(4% 수준), 성능과 안정성도 높은 '그래핀 촉매' 덕분이다.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의공과대학 화학융합공학과 전인엽 교수팀이 백금 가격의 4%에



달하는 루테튬(Ru)을 그래핀에 담은 새로운 촉매 물질, '루테튬/그래핀(Ru@GrP)'을 개발했다.

이 물질은 현재 상용화된 백금 촉매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추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내구성도 지녔으며, 백금 촉매를 대체할 차세대 촉매로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가장 풍부한 원소로 미래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소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에서 분리하고 있어 제조단가는 낮지만, 높은

수송비와 환경오염도 유발한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물(H2O)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전기분해로 수소를 발생시키는 반응(Hydrogen Evolution Reaction, HER)이 중요하게 활용된다.

물의 전기분해에서 고효율을 달성하려면 수소발생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 전압이 낮고, 반응속도가 빨라야 한다.

지금까지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우수한 물질로는 백금이 꼽혔지만, 귀금속이라 비싸고 물에서 전기화학적인 안정성이 낮아 조금씩 많은(용해)

문제가 있었다. 백금을 대신한 비(非)귀금속 기반 촉매 연구도 많았지만 물에서 부식(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전인엽 교수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우수한 촉매의 조건은 크게 고효율, 우수한 내구성, 가격경쟁력 등 셋을 꼽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지난해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지에 보고한 루테튬 촉매를 한층 강화시켜 상업화에 필요한 물 분해 촉매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결과"라고 강조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대, 청소년 대상 '공·감·대!' 인문학 강좌

전주대학교 인문학플러스(HK+) 연구단(단장 변주승)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8일부터 효자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대!'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감·대!' 강좌는 전종운(전주대 기초융합교육원) 교수의 '연극놀이'가 있는 철학이라는 주제로 11월 2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 참여한 고예림(15, 전주중학교) 학생은 "처음에는 친구들과 앞에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함께 연구 활동을 하니 마치 놀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다"라며 다음 강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진우(한국어문학과 교수) 지역인문학센터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인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다"라며 보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밖에도 '멘토와 함께 읽는 인문고전', '조선 청년, 일기를 쓰다' 등의 '공·감·대!' 강좌가 있으며,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인문아카데미 ▲교양플러스 ▲소담소담(小談笑談) ▲공감대 ▲라온 학교 ▲가온 인문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019년 3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강좌 신청과 일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주대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커플링사업 인성교육·취업캠프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최근 남원 컨설팅리조트에서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2018년 산학관커플링사업 인성교육 및 취업캠프'를 진행했다.

전라북도도가 지원하고 전주대 산학관커플링사업단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4개 사업단(스마트에너지, 식품경영, 탄소융합, 리빙랩기반문화콘텐츠) 소속 학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나를 알면 꿈이 보인다'는 주제로 자아탐색, 이미지 프리즘, 인생설계, 우리의 미래설계 작성 등 다양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자아탐색 및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별 활동 및 발표를 통해

팀워크 및 협업정신을 배우고 발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탄소융합인재육성사업단 고상철 단장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강화와 전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개의 사업단이 통합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개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통합 교육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와 취업연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플링사업은 대학의 취업률 향상과 구인·구직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와 학교, 기업의 협력 체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취업률 8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관광분야 전문인력 양성·취업연계 박차

전주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간여행권역 청년인력 양성과정으로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전라북도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시간여행권역 청년교육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전주대 지역혁신관에서 진행된다. 총 8회에 진행되는 교육은 통합교육과정, 일반교육과정을 비롯한 현장답사 및 현장포럼, 청년 도시 마케팅과 MICE 전문 인력을 위한 멘토 & 멘티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SM 엔터테인먼트 광영호 이사, 수제맥주 더 부스 크래프트 강명희 마케팅 담당이사, 아나운서 김실,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류인경 대표 등 스타강사들이 나선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